

고기는 되고 바나나는 안되고 ... '속 비닐' 금지 혼란

대형마트·백화점 등 일회용 봉투 사용 금지 첫날부터 혼란 백화점 매장마다 제지 힘들어...정확한 규칙 없어 혼란 가중

1일부터 대형마트와 백화점, 쇼핑물 등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돼 단속이 시작됐지만 첫날부터 예상치 못한 혼란이 빚어졌다. '속 비닐' 사용 여부가 제품마다 명시돼 있지 않은 탓에 대형마트에서는 혼선이 있었고, 백화점에서는 각 브랜드 매장마다 사용하는 쇼핑백을 제지할 수 없어 한숨을 내쉬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3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이날부터 단속에 들어간다. 전국 대형마트와 매장 크기 165㎡ 이상의 슈퍼마켓, 백화점, 복합상점가(쇼핑몰) 등을 점검해 일회용 비닐봉투 제공시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3개월의 계도기간이 있었지만, 현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문제점이 속출하면서 혼란이 발생했다.

지난 2010년부터 환경부와 비닐봉투 판매금지 협약을 맺고 중량제봉투와 종이박

스 등을 사용했던 대형마트의 경우 비닐봉투 사용에 따른 혼란이 없을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신선식품 판매대에 롤 형태로 뜯어서 사용하는 '속 비닐'이 문제가 됐다. 환경부는 '포장되지 않은 1차 식품, 벌크로 판매하는 과일' 등은 속 비닐 사용이 가능하다고 안내했지만 제품명을 명시한 게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 이날 광주의 한 대형마트에서는 해당 법률에 따라 두부, 어패류, 고기 등 액체가 새 수 있는 제품, 휴 문은 채소 등을 제외하고 사과와 바나나 등에 대해서는 속 비닐을 제공하지 않았다. 환경부의 안내에 개별 제품명이 명시되지 않아 '혹시 단속에 걸리지 않을까' 속 비닐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반면, 다른 대형마트에서는 '벌크로 판매하는 과일'에는 속 비닐 사용이 가능하다는 환경부 설명에 과일 등 상품에도 속 비닐을 제공했다.

백화점 업계도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두고 예상치 못한 '속 얇이'를 하고 있다.

입점한 브랜드 매장에서 비닐 제질의 봉투를 제공해 단속에 걸릴 경우 해당 브랜드가 아닌, 백화점이 벌금을 낼 수밖에 없어서다.

백화점의 경우 입점 브랜드 매장에서 자체 제작한 쇼핑백을 사용하고 있으나, 종이로 만든 쇼핑백이라도 겉면이 비닐 제질이라면 사용할 수 없다. 문제는 각 매장에서 이를 사용하더라도 백화점에서는 일일이 제지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그렇다고 백화점에서 종이봉투를 제작해 사용을 강제하면 자칫 '갑질'로 몰릴 수도 있어 난처하다는 게 백화점 업계의 입장이다.

광주의 한 백화점 관계자는 "매장에서는 브랜드 이미지에 맞게 디자인한 쇼핑백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를 다 지켜보고 있을 순 없는 노릇"이라며 "이미 충분히 공지한 상태에서 관련 법률을 위반할 땐 백화점이 아닌 해당 브랜드가 벌금을 내는 게 옳은 것 아니냐"고 말했다.

특히, 브랜드 매장의 경우 본사의 '쇼핑백 밀어내기'를 당했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기존에 제작했던 쇼핑백이 재고로 남게될 처지에 놓이자 브랜드 본사가 이를 각 매장에 떠넘겼다는 것이다.

한 브랜드 매장 매니저는 "기존 본사에



전국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물 등지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 첫날인 1일, 광주 북구 연제동의 한 대형슈퍼마켓에서 이용객이 개별 포장된 야채를 고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서 50~60개의 쇼핑백을 구매했는데 몇 달 전 갑자기 500여개를 구매하도록 했다"며 "이젠 사용할 수 없는 쇼핑백을 수백장 쌓아두고 새로운 쇼핑백을 구입할 처지에 놓였다"고 했다. 비닐 재질이 섞인 기존 봉투

를 사용할 수 없게된다는 사실을 모른 채 본사의 요구에 따라다가 그 부담을 본인이 떠안게 됐다고 하소연했다.

광주지역 유통업계 관계자는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 상당수가 이미 장바구니와 중

이봉투 사용이 자리를 잡고 있어 큰 혼란은 없을 것"이라며 "쇼핑몰 입점 브랜드의 쇼핑백과 속 비닐 제공에 대해서는 제도의 보완·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광주·전남 올해 임대주택 2천여 세대 공급

LH, 2479가구 취약계층 지원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올해 광주·전남지역에 2000가구 이상의 공공 임대주택이 공급된다. 또 다가구주택 등 1157가구를 추가 매입하고, 2479가구 규모의 전세 물량을 확보해 소년·소녀 가장 등 사회 취약계층에 지원한다.

LH 광주전남지역본부 관계자는 "올해의 올해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신규 사업비 5078억원 등을 투입해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빛그린산단과 광주선운2지구 토지 개발 등 개발사업에 1518억원, 광주 효천·누산 공공주택 건설 등 주택사업에 1779억원, 매입 임대사업 등 주거복지사업 1781억원 등이다.

우선 공공 임대주택 사업으로 광주 효천지구와 영암 용암지구·고흥 남계지구 등 지역 거점지구에 소득계층별 공공 임대주택 2223세대가 이달부터 순차 공급된다.

또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다가구 주택 등 1157가구를 추가 매입하고, 2479가구 규모의 전세 물량을 확보해 소년·소녀 가장 등 사회 취약계층에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엔 광주·전남에선 최초로 아파트 388가구를 매입해 신혼부부에게 제공한다.

'광주형 일자리' 모델이 적용되는 광주 빛그린국가산업단지 내 상가겸용 주택용지 등 68만3000㎡ 규모의 토지 개발사업도 추진된다.

토지 개발 등 생활 인프라가 확충되면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LH는 기대하고 있다.

백인철 LH 광주전남본부장은 "올해 계획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일자리 창출과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며 "지역의 잠재력과 역동성을 끌어올릴 개발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LH가 지역발전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전남 농산물 사랑해주세요"



농협 전남본부 가두 캠페인

농협 전남지역본부(본부장 김석기)는 1일 목포버스터미널 인근에서 목포원에농협 임직원과 함께 '새 봄맞이 가두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날 전남농협은 고객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펼치고 있는 이번 캠페인은 관내 지역 농·축협에서 진행 중이며 오는 12일까지 이어진다.

김석기 본부장은 "새봄을 맞아 따스한 봄기운과 함께 고객의 가정에도 훈훈하고 좋은 일만 가득하길 기원한다"며 "고객으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전남농협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협이 고객감사와 행복기원의 마음을 담아 펼치고 있는 이번 캠페인은 관내 지역 농·축협에서 진행 중이며 오는 12일까지 이어진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168.28 (+27.61)	↑ 금리 (국고채 3년)	1.73 (+0.04)
↑ 코스닥	736.81 (+7.50)	↓ 환율 (USD)	1133.70 (-1.40)

광주·전남, 중소기업 합동일자리 박람회 개최

25일 광주 DJ센터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오는 25일 김대중컨벤션센터 다목적홀에서 '제 3회 광주·전남 합동 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광주시와 전남도, 병무청, 한국전력을 비롯한 중소기업 지원기관이 합동으로 진행되는 종합 일자리박람회다. 지역에서 개최하는 국제전시회인 '국제부러산업전시회'와 연계해 부러기업과 에너지밸리 입주기업 등 지역 중소기업의 인력미스매치를 해소하는 등 수요자 맞춤형으로 진행된다.

글로벌강소기업과 병역특례업체, 에너지산업 및 ICT 정보통신업체 등 구인 희망하는 60개 기업이 참여하고 제대군인, 대학, 특성화고, 일반 구직자 등 지역인재 3000여명이 일자리를 찾는다.

박람회에 참여하는 기업에는 병무청 병역지정업체 종합평가시 7점의 가점을

부여하도록 했고, 상담부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또 현장에서 면접을 볼 수 있도록 필요한 물품도 지원한다.

중기청은 박람회와 연계해 오는 25일부터 5월 12일까지 온라인 일자리 박람회(http://myjob.jobkorea.co.kr)도 동시에 진행, 행사장을 찾지 못한 구직자들도 인터넷을 통해 구직이 가능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방침이다.

한편, 일자리박람회에 참여하길 희망하는 기업은 광주지역 업체의 경우 광주 경제 고용진흥원 일자리종합센터(ipupark1@hanmail.net), 전남은 전남 일자리종합센터(jnjob@naver.com)로 10일까지 참가신청서와 구인신청서를 제출하면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신청서는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www.mss.go.kr/gwangju)과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www.kicox.or.kr) 공지사항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에나방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NAVER 공식 포스트에서 구독하세요

Aroma Life
 아로마라이프

FACE 메이크업은 하시면서,
BODY 는 왜 메이크업을 하지 않으십니까?

44
 흐트러져 있는 살들을 제자리로 정돈 시켜 완벽한 몸매로!

가능성속옷장수기업
가능성 속옷의 명가

한국, 미국, 일본, 중국특허
 부위별로 특별하게!
 생리적인 불편을 해소!

편안한착용감
 탄성GOOD! 흡발습 GOOD!
 일본도레이社 LYCRA
 발달면육각형사용

실크프로테인아미노산기공
 (원적외선파동)

www.aroma-life.co.kr
1588-2219